

가사노동의 변화: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The Changes from the Traditional Society to the Industrial Society in Housework

순천대학교 소비자·가족아동학과
조교수 김성희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eon National Univ.
Assistant Prof. : Sung-Hee Kim

〈목 차〉

- | | |
|-------------------|------------------|
| I. 서론 | IV. 산업사회에서의 가사노동 |
| II. 연구범위 및 연구자료 | V. 결론 |
| III. 전통사회에서의 가사노동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nges that occurred in housework from the traditional society focused on the Yi Dynasty to the industrial society in Korea using the methods of historical research.

The changes that occurred in housework had two principal effects. The first was to integrate the work of servants and children to the work of women. In the Yi Dynasty the servants called Nobi were entrusted with the hard housework and the children from their earliest days assisted women in the house. The second was markedly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the average housewife. In the period of industrialization, the household technology might have eliminated the labor of housewives, but housewives took the responsibility of almost all the processes in housework.

I. 서론

기존의 역사학이 남성 중심으로 서술되어 여성들

의 체험을 나타내는데 소홀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여성노동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과 관련된 활동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간과

* 이 논문은 1999년도 순천대학교 공모과제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되고 있는데 이는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가사노동이 어떤 사회 어떤 지역에서는 인간의 생존과 더불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한다.

여성을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로서 인식하고 가사노동의 역사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을 기술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가사노동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사노동에 대한 논의는 그 어느 시기보다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때의 가치변화에 집중되어 있다. 즉 많은 연구자들이 일터와 생활이 분리되면서 가사노동은 생산적 기능을 상실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산업화 이후 가정에 대량으로 도입되는 상품과 가전기기에 의해 과거의 자급자족적 생산이 감소하고 노동과정이 감소하여 가치가 하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도 가족원의 욕구충족과 관련된 가사노동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육체적 노동을 경시하는 유교의 영향으로 고된 작업과정이 많았던 가사노동은 주로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계층이 수행하였다. 주된 가사노동 수행자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가사노동의 가치도 높게 평가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경향을 보면 전통사회에서의 사적인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기도 할 뿐더러, 조세납부나 시장교환과 같은 공적인 성격을 지닌 가내노동을 포함하여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변화를 시대에 걸쳐 비교·고찰하고자 할 때 연구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전통사회에서 사가(士家)의 가사노동을 주로 담당하였던 노비에 대한 연구가 누락되어 있는 상태여서 가사노동의 수행주체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사회에서 사적으로 행해지던 가사노동에 초점을 두고 이의 수행자였던 노비와 노비를 소유한 주부, 소유하지 못한 주부의 가사노동을 우선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사노동의 수행자와 노동과정이 산업사회에서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가정하는 것처럼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가 하락되었는지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전통사회는 유교의 이념에 따라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 위계를 두고 사회계층에 따라 노동영역을 제한해왔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적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가사노동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문화에서 파생된 이론에 주로 의존해온 경향이 있었다.

현재의 가정생활 현상은 과거의 고유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오늘날의 가사노동 현상을 설명하고 미래의 문제를 예측하고자 할 때 전통사회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여성의 노동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가사노동의 역사성을 밝힘으로써 본 연구는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미래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범위 및 연구자료

전통사회의 범주는 삼국시대 이전까지도 포함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교적 전통이 가장 컸던 조선시대로 제한한다. 산업사회는 경제개발이 본격화되어 다양한 소비상품과 가전기기가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한 1970년대 전후를 주된 고찰시기로 한다.

가사노동의 범위는 산업사회의 가사노동을 기준으로 가족원을 위해 행해지는 의·식·주생활관련 노동, 육아, 가정관리로 제한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사노동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반노동과 달리 가족원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적인 노동으로서의 성격이 크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 주부가 가정내에서 행하던 노동에는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적인 성격의 가사노동 뿐 아니라 조세납부나 시장교환과 같은 공

적인 성격을 지닌 노동도 있었다(김성희, 1992).

산업사회의 여성이 가사노동과 취업노동을 병행하는 것처럼 전통사회의 여성은 사회적 가치를 갖는 노동과 사적인 가치를 지니는 두 가지 성격의 노동에 종사하였다.

전통사회의 가사노동 범주에 사회적이고 공적인 성격의 생산노동의 개념을 포함시킨다면 그것은 오늘날 취업여성의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을 같은 범주의 노동으로 보는 것과 같은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세납부나 시장교환을 위한 생산활동을 제외하고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해 행해지는 의·식·주생활관련 노동, 육아, 가정관리로 가사노동의 범위를 제한한다.

연구자료는 각종 공식적이거나 사적인 문헌자료 및 사진 등 이용가능한 모든 자료를 사용한다. 자료의 일반화 문제, 지역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이는 후속연구에서 계속적인 자료 발굴로 보완, 수정되어야 할 제한점으로 남겨둔다.

III. 전통사회에서의 가사노동

유교에서는 노동을 노심자(勞心者)의 일과 노력자(勞力者)의 일로 분리하고 노심자의 일은 대인지사(大人之事)로 노력자의 일은 소인지사(小人之事)로 간주하였다(이종호, 1993). 이러한 유교의 영향으로 조선시대에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사이에 노동분업이 있었고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을 우위의 것으로 평가하였다.

전통사회에서 가사노동은 그 노동과정으로 볼 때 주로 노력자의 일이었다. 식사준비만 보더라도 마을에 있는 샘이나 강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절구나 맷돌, 방아를 이용해서 낱알을 찧어 장작에 불을 붙인 후 지어야 했다(김성희, 1996).

이러한 노동과정의 특성으로 가사노동의 대부분은 신분이 낮은 계층이 수행하였다. 세종실록 제 38권 세종 9년 12월 갑술일에 임박이라는 자가 “시집가지 않은 누이에게 종이 없다면 누가 장가들려고 하겠는가. 한평생 제 손으로 물도 길고 방아도 찧고 하였으니 참으로 불쌍하다”고 시집가지 않은 누이에게

부모가 죽은 뒤 물려받은 여중 3명을 모두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노력을 요하는 가사노동은 우선적으로 하위계층인 노비의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노비는 양반, 상민과 함께 신분구조의 주요계층으로 조선 전기에는 전 인구의 1/3이상 거의 1/2을 점유하였다(지승중, 1995). 조선 중기에도 노비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전 인구의 30~50%를 차지하였다(김용만, 1997).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납속면천(納粟免賤) 등의 이유로 노비가 천민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그 수가 감소하였다.

노비의 사적인 보유실태는 1630년 경상도 산음현의 경우를 보면 양반의 68%가 2인 이상을 보유하였고 1807년 경상도 월성군 양좌동의 경우에는 전가구 74%를 차지하는 양반이 모두 1~2인의 노비를 두었다(최재석, 1983).

노비 중 가사노동을 주로 대노(代勞)하였던 여성 비(婢)의 비율은 1807년 양좌동 호적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노비를 둔 가구 중 비(婢)가 없는 가정은 1.5%에 지나지 않고, 78%가 1~4인의 비(婢)를 소유하였다. 대부분의 양반의 가족에는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여성 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노비의 가사노동

가사노동 중 특히 식사준비와 관련된 일은 노비의 일이었다. 오희문(1539~1613)의 왜미록 병신년(丙申年) 11월 20일 일기에 “들으니 희철의 계집종 개금이 도망갔다고 하는데 … 다만 한 계집종이 있을 뿐인데 지금 또 도망갔으니 조석 식사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걱정이 처지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노비가 없는 상태에서의 식사준비는 큰 걱정거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유희춘(1513~1577)의 미암일기(眉巖日記)에는 기사년(己巳年) 11월 1일에 “비(婢) 순지를 첩에게 줬다. 비가 없기 때문이다. 일찍이 일무라는 비(婢)가 있었는데 이제는 서울 정흥의 첩에게 보내버렸기 때문에 집에 밥짓고 물기를 종이 없어 아주 가

런해서 왔다”고 했다. 첩이라 할지라도 몸소 밥짓는 것에 대해 동정하고 원조해 주는 것으로 보아 특히 사가(士家)에서 주부가 직접 식사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드른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사준비가 우선적으로 노비의 일이라는 하였지만 노비 중에서도 여성인 비(婢)가 하던 일이었다. 조선 중종조의 어숙권이 패관잡기(穉官雜記)에 “무릇 관청이나 사가에서 밥을 짓고 제구를 공급하는 것은 모두 여자인데 한자 습관과 풍속이 그러할 뿐 아니라 실상은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기 때문이다(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85)”라고 한 것에서 식사준비가 기본적으로 여성의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식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에 남성의 참여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구한말기의 기록사전에 따르면(조풍연 해설, 1996) 물을 길고, 디딜방이나 연자방아, 맷돌을 이용해 곡식을 찧고 있는 것은 대부분 여성이지만 떡치기와 기름짜기, 절구질에 남성이 참여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식사준비가 여성인 비(婢)의 일이라 하더라도 남성 노(奴)도 관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노비들은 가내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일 외에도 직조나 바느질 등 의생활과 관련된 노역도 담당했다. 쇠미록 갑오년(甲午年) 12월 15일에 늙은 계집종 열금이 죽자 “끓였을 때 잡혀와서 심부름을 하면서 나이 70이 지나도록... 길쌈을 잘하고 집안일에 부지런하고 검소하며 조금도 속이는 일이 없었으니 이는 죽히 취할 바이다”고 한 기록에서 직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바느질을 담당하는 비로서 침선비가 존재하였다는 것에서(김용만, 1997) 노비들이 바느질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사준비와 직조 외에 육아 및 자녀돌보기도 비자가 하던 일이었다. 유모는 중소지주 이상의 양반층에서는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분재기(分財記)에서 노비를 분재하면서 자녀별로 1자녀에 1유모 혹은 2자녀에 1유모를 책정하고 있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김용만, 1997).

육아의 거의 모든 일을 맡았던 유모는 혼수로 준비되기도 하였다. “새며느리가 처음으로 시부모에게

인사를 올리는 날 ... 젖어미 1명, 몸종 2명, 남종 10명을 넘지 못하게 할 것(세종실록 제36권 세종 9년 4월 임술일)”이라고 예조에서 유모의 수를 제한하기도 하였다.

자녀돌보기에는 유모 외에 어린 비자(婢子)도 이용되었다. 미암일기 계유년(癸酉年) 8월 28일에 “밤 세시에 소비(小婢) 들금이가 딸 방의 문 밖에서 숙직하다가 잠자던 중에 잘못 마당으로 나가 떨어져 머리가 장독에 부딪쳐 깨지는 바람에 온 집안이 놀라 살펴보았다.”고 한 기록에서 이런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노비는 장보기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김삼의당(1769~) 시문에 “사내종은 행옥(杏屋)에서 술을 사 오고, 여종은 나물밭에서 잡초를 뽑네”라는 글귀가 있다(허난설헌 외, 1973). 쇠미록 갑오년(甲午年) 9월 22일에는 “막정(奴)을 함열에 보내서 그 길로 익산 이충의의 집에 가게 했다. 이는 장에서 물건을 사오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기록이 있다. 장보기는 특히 남자 노(奴)의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수리와 나무하기도 노비가 하던 일이었다. 쇠미록 병신년(丙申年) 1월 26일에 “덕노(德奴)를 임천 집에 보내서 나무를 베어주고 오게 했다”는 기록이 있고, 갑오년(甲午年) 3월 5일에는 “송노(宋奴)와 덕노(德奴)는 울타리를 하려고 술가지 두 바리를 베어 왔다”는 기록이 있다. 나무하기와 집수리와 관련된 일을 노비가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권호문(1532~1587)의 송암집에 “남자 종은 대청과 뜰을 청소하고 여종은 방을 청소한다”라고 한 것에서 청소도 노비가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자의 시중에도 노비가 사용되었다. 이런 사실은 쇠미록 정유년(丁酉年) 3월 16일에 “인아 처(妻)의 병세가 여전하니 답답하다. 그래서 덕노(德奴)를 시켜서 말을 가지고 금천에 가서 계집 종 은개를 데리고 오게 하였다. 환자 옆에서 시중 들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노비들은 밥짓기, 바느질, 청소, 육아, 가족돌보기, 난방관리, 집안수리, 장보기 등 오늘날의 주부가 행하는 가사노동과 유사한 노동을 수행

하였다. 이들은 주부를 대신하여 고된 육체적 노역을 대행하였지만 노동가치는 천민이라는 사회적 지위로 높게 평가받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다만 유모의 경우는 그 은혜로움으로 낮지 않게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가치평가는 성종실록에 양어머니를 위해 상복을 입을 것인가 하는 다음의 논의 속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유모라는 것은 상전이 시켜서 젖을 먹였을 뿐인데도 은혜가 있다 하여 상복을 입는데 하물며 길러준 부모를 집안의 여종에게 대비해서 되겠는가? … 길러준 은혜에는 귀하고 천한 구분이 없지만 높고 낮은 명분은 엄연한데 어떻게 베풀하는 사람으로서 천한 사람의 상복을 입을 수 있겠는가?(성종 11년 12월 신유일)”

유모의 노동가치가 아무리 부모에 상응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신분상 길러준 양어머니보다는 높게 평가될 수 없다는 주장 속에서 노비의 노동가치는 높게 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노비를 소유한 주부의 가사노동

조선시대에 선비는 정신노동을 전유하였던 계층이므로 생활과 관련된 육체노동을 대로(代勞)해줄 노비가 절대 필요하였다. 선비들이 육체노동에 관여치 않았던 것은 “양반이라면 비록 굶는 한이 있더라도 팔을 끼고 앉아 손수 일하는 법이 없다.”(김용덕, 1981: 176에서 재인용)라는 홍대용의 비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선비라 하여 모두 노비를 소유한 것은 아니었다. 관직을 갖지 못한 선비의 경우는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노비와 토지가 있다하더라도 자녀의 혼비(婚費)나 장비(葬費) 등의 지출과, 문제상속으로 가난하게 살 수 밖에 없었다(이장희, 1989). 1630년 경상도 산음현의 경우를 보면, 양반의 52%만이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최재석, 1983).

몰락한 선비의 아내에 대해 송익필(1534~1599)은 구봉집에서 “가난한 선비들의 아내는 밤에는 베를 짜고 낮에는 김을 맨다. 남편이 열고 자식들이 굶주리게 되니 능히 분수를 지키기란 참으로 어렵다.”고

기록했다.

강정일당(1772~1832)도 생업이 몰락지경에 있었던 빙모 안동권씨의 행장문(外姑孀人安東權氏行狀)에 “날마다 첫닭이 울면 일어나 집안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밤중이나 경우 잠자리에 들었으며 혹은 밤을 새워 가면서 일을 하되 조금도 수고롭게 생각지 않았다”(허난설헌 외, 1973)고 하였다.

육체노동을 경시하는 선비 계층이라 할지라도 가난하여 노비를 소유할 수 없고 주위에서 원조가 없는 경우에는 주부가 모든 가사노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양반의 노비 소유는 조선후기에는 증가하여 1807년 경상도 양좌동의 장적을 보면(최재석, 1983) 양반 모두가 노비를 소유하였다. 노비를 소유한 상류계층의 부녀의 한가한 일과는 18세기 실학자 이덕무(1985)의 다음과 같은 기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루 걸러 세수하거나 머리를 빗지 아니하고 이야기 책만 읽다가 낮잠을 자고, 어린 계집종이 재물을 감추고 도둑질을 하여도 살피고 깨닫지 못한다.”

1894년에서 1897년 사이에 한국을 답사한 비숍도(1994) “유한계급 여성들은 지루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은 즉흥적인 놀이나 바느질, 자수, 언문으로 쓰여진 가벼운 문학작품 읽기, 결코 끊이지 않는 이웃의 가십거리, 아이에 대한 끝없이 계속되는 논란들로 소요된다. 만약 아내가 정말로 권태로울 때는 남편의 허락 하에 광대나 가객을 안채로 불러올 수 있다. 그러면 그녀는 창문 틈새를 통해 그것들을 구경하였다.”고 육체노동에서 면제된 한가함을 전하고 있다.

노비가 있는 경우 가사노동은 대부분 노비가 수행하기는 하였지만 주부가 전혀 가사노동을 수행치 않은 것은 아니었다. 김삼의당(金三宜堂) 시문에 “낭군 옷 마르려고 가위잡고는/ 병풍 사이 남은 촛불 자주 돋우네”, “억지로 다듬이질 밤은 깊구나(허난설헌 외, 1973)”라고 한 것에서 사가의 부녀들도 바느질하고 다듬이질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규중 여인의 일곱 벗으로 바늘, 실, 자, 인두, 다리미, 골무, 가위가 꼽혔던 것에서도(허동화, 1977) 노비가 있더라도 바느질과 같은 의생활과 관련된 일은 주부가 수행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가의 부녀가 가사노동에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양반의 부인들에게 강조된 일은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정신적인 가사노동이었다. 소혜왕후 한씨(1437~1504)가 내훈(內訓)에서 강조한 것을 보면 언행(言行), 효친(孝親), 혼례(婚禮), 부부(夫婦), 모의(母儀), 화목(和睦), 럽검(廉儉) 등 가족관계 유지, 가족 의례와 같은 관리적인 일이 부녀의 주된 일로 열거되고 있다.

우암 송시열(1607~1689)도 계녀서(1986)에서 시집가는 딸에게 의복음식하기외에, 부모섬기기, 남편 섬기기, 시부모섬기기, 형제화목, 자녀가르치기, 제사 받들기, 손님대접하기, 말씀조심하기, 재물 절약하기, 일을 부지런히 하기, 노비부리기, 팔고 사기 등 인적 관리와 가계 관리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가르치고 있다. 대부분 노비가 있었던 사가의 부녀에게 주된 일은 남편인 선비와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노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노비를 소유하지 않은 주부의 가사노동

노비를 소유하지 않은 주된 계층은 상민과 천민이었다. 1663년 서울의 경우를 보면 양인 가구는 30%, 노비가구는 53%로 이들 계층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김용만, 1996). 그러나 조선 후기 18~19세기에는 양반이 80%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상민과 천민은 20%이하로 감소하였다.

상민이나 천민도 노비를 소유할 수는 있었다. 1630년 경상도 산음현의 경우를 보면 상민의 39%, 천민의 9%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1807년 경상도 양좌동의 경우를 보면 상민의 1.6%만이 노비를 보유하고 천민이 노비를 보유한 경우는 없었다(최재석, 1983).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상민과 천민의 대부분이 노비를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부녀들이 모든 가사노동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에른스트 오펜트트가 조선기행(1974)에서 "중류 또는 하류계급에서는 거의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집에서 한사람 이상의 여자를 흔히 발견할 수 없다"고 한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1890년 조지헤머존스 부부도 "하인이 있는 집안

이면 가사에 그다지 바쁘지 않겠지만 중류이하에서는 집안의 일 전부가 부인의 것이 되었다(김영희, 1983:14~15 재인용)"고 하여 중류이하 평민가정에서는 부인이 가사노동을 전담하였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

상민과 천민 계층의 여성들이 노비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비숍(1994)이 "하층계급의 여성은 대부분 가정의 노예이다."라고 한 말에서 더 직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상민과 천민계층의 부녀들이 온갖 고된 가사노동으로 노비처럼 지내기는 하였지만 이들의 자녀들은 일찍부터 가사조력자로서 한 몫을 하였다. 미국 외교관 샌즈는 "어린 동생을 포대기로 등에 업고 무거운 빨랫감을 머리에 인 여자아이들을 강가에서 만나기란 쉬운 일이었다. 동네 골목길에서도 물통이를 머리에 얹고 지나가는 어린 소녀들을 흔히 마주친다."고 했다(백성현 외, 1999: 214에서 재인용).

비숍(1994)도 땀감 찾는 일은 어린 소년들이 하였고 지게에다 짐을 싣고 다녔다고 관찰하였다. 노비 없는 상황에서 주부가 노예처럼 일하기는 하였지만 가족의 가사조력도 적지 않아 주부는 노동부담을 덜 수 있었다.

게다가 조선시대의 가족수를 보면, 조선 후기 도시가족의 경우 약 2/3가 부부가족으로 추정된다. 1825년 대구 장적(帳籍)에 따르면(최재석, 1983) 양반계층 중 5인 이상 가족의 비율은 50%정도인데 반해, 상민계층에서 5인 이상 가족은 23.7%, 천민계층에서는 22.2%에 지나지 않았다. 대체로 상민과 천민은 2인, 3인 가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상민계층에서 가사노동을 요구하는 가족의 수는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생활표준도 매우 낮아서 의생활을 보면 "시골백성은 1년 내 무명옷 한 벌을 얻어 입기 힘들고 일생동안 침구를 구경하지 못한다(박제가, 1750~1805; 1990)"고 했다. 그리고 식생활도 "반찬이라기보다는 양념에 가까운 것이 놓여졌고 가난한 사람은 하루 두끼로 만족해야 했다(비숍, 1994)"고 한다. 생활에 대한 낮은 표준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도 적었다고 볼 수 있다.

IV. 산업사회에서의 가사노동

전통사회에서 분업화되어 있던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간의 차이는 산업화 이후 각종 기계의 등장으로 인간노동력이 절감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신분계층에 따른 일의 차이도 능력과 적성에 따른 일의 선택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화는 일터와 가정의 분리, 남성과 여성의 일이라는 공간상의 성별 노동분업을 초래하였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집을 중심으로 같은 공간에서 노동을 하였지만, 산업사회에서 여성은 가정에 남아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자로, 남성은 일터에서 임금노동을 담당하는 자로 분리되었다. 노비의 일, 자녀의 일이기도 하였던 가사노동은 산업사회에서는 전적으로 주부의 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주부의 가사노동

1894년 갑오경장으로 노비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가사노동은 주로 주부가 아닌 가정고용인에 의해 수행되었다. 1932년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식모, 침모, 아이 보는 아이 등 고용인이 1명 이상 있는 경우가 46%, 2인 이상 있는 경우가 38%로 거의 대부분이 고용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정고용인 보유의 높은 비율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공급이 감소하면서 1970년대에는 40%내외로, 1980년대에 들어서는 20%내외로 감소하였다(김성희, 1996).

이처럼 가정고용인이 감소하는 한편 자녀들의 가사조력도 취학과 진학으로 감소하였다. 1966년 여아의 국민학교 취학율은 95.1%로 증가하였고(이만규, 1988),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율은 1966년 40.4%에서 1980년 95.1%로 증가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91).

가정고용인이 감소하고 자녀의 가사조력자로서의 역할이 감소하면서 중상류층 주부는 과거와는 다르게 육체노동에서 정신노동까지 모든 가사노동을 전담하게 되었다.

1968년 한 여성잡지(여성동아, 1968)에서 주부의

가사노동으로 열거한 것을 보면 “가정경영에서 밥짓기, 찬만들기, 고급요리, 청소, 세탁, 의류정리, 바느질, 집안정비, 실내미화, 자녀교사, 보육, 남편의 비서, 설의, 남편에 대한 서비스, 가족위안을 위한 프로듀서, 가족의 주치의, 간호원, 짐수리를 위한 목수, 미장이 구실, 사업가 남편의 경우 자본금 조달”까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모두 포함하였다.

그리고 가사노동에는 지금까지 부여되지 않았던 사랑이라는 정서적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의 한 여성잡지에서는 “주부가 모든 살림을 사랑과 정성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가사는 식모에게 맡겨서는 안된다(여성, 1966)”고 주부가 사랑과 정성으로써 가사노동을 직접 수행할 것을 충고하였다.

육체적 가사노동도 이제는 더 이상 사회적 신분이 낮은 계층이 하는 일이 아닌 주부가 애정을 갖고 하는 품위있는 노동이 되기 시작하였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의 밥을 손수 짓고, 옷을 빨아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보살피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고 즐거운 일이었는가(여성동아, 1970. 4).”라는 주장에서 이러한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산업화 이후에 가정고용인이 감소하고 자녀의 가사조력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한편 이들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각종 가정기기와 편의상품이 대량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가정기기는 가정고용인의 감소현상이 뚜렷해지는 197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생산되었다.

이 시기의 가정기기 광고에는 “식모도 필요없고, 엄마는 가사에 전념할 수 있다”라든가 “식모를 대신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소비를 유발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정기기는 가정고용인과 가족을 대신하여 주부가 혼자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와 기계화

산업화 이전 전통사회에서는 가계유지에 필요한 많은 생필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다. 쌀과 부식류, 옷 뿐 아니라 비누, 신 등도 가족원이 직접 생산하고 제작해서 썼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도 모든 생활용품을 자급자족한 것은 아니었다.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자급자족할 수 없는 상품, 전문가가 만들어야만 하는 상품도 있었다. 따라서 대다수 지방농촌에도 시골장터가 있었고 특히 서울에는 농사에 의존하지 않는 인구가 많았으므로 시전이 발달하였다.

교역을 위한 시장의 수는 1770년경 1,064개 1830년 경에는 1,052개로 조선 후기에는 정기시(定期市)가 하루에 왕복할 수 있는 범위내에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였다(木村光彦, 1990).

시장에서 유통되던 물품에는 1909년 충청북도의 상품유통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충청북도관찰도에서 편찬한 한국충청북도일반: 이현창, 1990:179에서재인용) 쌀, 보리, 대두, 소두, 진임(眞荏:참깨), 水荏(수임)의 곡물과 연초, 감, 종이류, 면화, 면포, 마포, 저포, 명주, 양목(洋木), 실, 소금, 명태, 조기, 미역, 석유 등이 있었다.

19세기말 시골 장터에는 돛자리, 짚신, 부싯돌, 검은 아마포나 짚 등으로 만든 모자, 조잡한 면옷, 말재갈, 청소비, 나막신, 냄비, 말발굽, 가래, 문고리, 못, 목수의 연장, 나뭇, 과일, 생강, 닭과 꿩, 새, 토막난 쇠고기, 향아리가 상품으로 진열되었다(비습, 1994).

시장상품의 다양성은 산업화 이후 새로운 공장제 상품이 생산되면서 크게 증가되었다. 전통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품으로서, 가공식품은 1인당 공급량이 1966년 6g이던 것에서 1990년 1,603g으로, 빵과 면류는 1966년 985g에서 1990년 19,240g으로 과자류는 1966년 152g에서 1990년 8,007g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외식업체수는 1968년 83,262개에서 1990년 298,196개, 의류관련 제조업체수는 1960년 1,670개에서 1991년 6,638개로 증가하였다(최희진, 1994).

인간의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가정기기도 전기로 작동되는 기계는 아니지만 전통사회에서도 자연력이나 동물의 힘을 이용하는 물레방아나 연자방아와 같은 기구로 존재하였다(문화공보부 문화재 관리국, 1969).

산업화 이후 이러한 기구들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

는 믹서, 블렌더와 같은 가정기기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등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가진 가정기기도 개발되었다. 1969년 개발된 세탁기는 1979년 보급율 11%에서 1993년 91%로 증가하였고 1965년 개발된 냉장고는 1975년 보유율 6.5%에서 1989년 103%로 증가하였다(김성희, 1996).

다양한 상품과 가정기기의 보급 증가에 따라 가사노동 과정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 곡식쟁기의 고된 노역은 믹서의 보급과 정미 또는 제분된 상품의 도입으로 사라졌고, 장작을 때서 밥을 짓는 일은 가스레인지, 전기밥솥의 도입으로 사라졌다. 물동이를 이용한 물김기는 수도시설의 도입으로, 빨래의 고된 과정은 세탁기에 의해, 직조와 바느질은 기성복의 구입으로 사라졌다. 저장식품 만들기와 여름철 식품판리는 각종 냉동식품의 등장과 냉장고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런 변화 속에서 과거에는 노비의 일이기도 했던 식사준비가 산업사회에서는 전적으로 주부의 일이 되었다. 그리고 남성노비의 일이었던 장보기나 연료판리가 산업사회에서는 여성인 주부의 일이 되기도 하였다. 위생에 대한 강조는 세탁과 청소에서 주부의 일을 증가시켰고, 편리한 취사기구는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조리의 다양성에 대한 가족의 요구를 증가시켰다.

V. 결론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사회가 변모하면서 가사노동 수행자, 노동과정, 노동가치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현재 산업사회에서 가사노동은 주부의 일로 당연시되지만 전통사회에서는 육체적 노동을 경시하는 유교문화의 전통으로 노비를 소유할 수 있는 한은 일차적으로 노비의 일로 간주되었다. 노비는 밥 짓기, 물김기, 나무하기, 바느질, 직조, 청소, 육아 등 오늘날 산업사회의 주부가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가사노동을 수행하였다.

노비가 고된 가사노동을 대행하는 동안 노비를 소유한 주부는 주로 가족의 화목유지, 가계관리 등 정

신적이고 관리적인 가사노동을 수행하였다.

노비를 소유한 주된 계층이었던 양반은 조선 후기에는 전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들 가정에서는 여성 비를 대부분 1인 이상 소유하였다. 전통사회에서 가사노동은 대부분 노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노비를 소유하지 못한 상민과 천민계층에서는 주부가 육체적 가사노동 외에 관리적 노동까지 모든 노역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들 계층에서 자녀들은 가사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컸고, 가족수는 적었으며 생활은 단순하였다. 가족들의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는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노비제도 폐지 이후에도 가정고용인으로 남아있던 이들 가사수행자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1970년대 이후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가정고용인이 감소하고, 자녀의 가사조력도 취학과 진학의 증가로 감소하면서 중상류층의 주부들은 육체노동에서 정신노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사노동을 혼자 전담하게 되었다.

산업사회에서 중상류층의 여성은 과거 무산계급의 주부와 같이 육체노동에서 정신노동까지 모든 가사노동을 직접 수행하는 방향으로 동질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산업사회의 주부노동에는 이전에는 강조되지 않았던 사랑과 애정의 가치가 부여되어 가사노동은 품위있는 일이 되었다.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와 기계화는 고된 육체적 노동 과정을 소멸시키고 감소시켜 가사노동 과정을 보다 수월한 것으로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산업사회에서 가사노동은 전적으로 주부 일인의 일이 되어 노동부담을 증가시키기는 하였지만 편리한 가정기기와 소비상품의 보급은 주부의 노동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과 관련된 상품의 구입과 기구의 사용은 전통사회에도 있었던 현상으로서 산업사회에 증가된 상품과 새로운 기구의 도입은 오히려 과거에는 노비의 일, 남성의 일이었던 가사노동을 주부의 일로 만든 경우도 있었다. 또는 새로운 일을 부가시키거나 생활표준을 증가시켜 주부의 가사노동의 양

을 늘리기도 하였다.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하락된 것으로 논의된다. 즉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은 남성의 노동과 가내의 일로서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산업화 이후 가정이 사적영역으로서 소비를 담당하게 되고 가정기기 및 각종 상품의 도입으로 생산적 노동과정이 감소하면서 노동가치가 절하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도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해 행해지는 사적인 가사노동의 가치는 그 주된 수행자가 천민이었던 노비계층이었으므로 높게 평가되지는 않았다. 다만 유모가 수양부모보다 낫지 않게 평가되기도 하였으므로 육아만이 그 노동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다고 볼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노비의 일, 자녀의 일이기도 하였던 가사노동이 산업사회에서는 주부 일인의 일이 되고, 많은 편의상품과 가정기기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는 측면에서 주부의 생산성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가사노동의 수행자, 노동과정이 달라진 가사노동에 대해 시대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내려져야 함에도 과거와 같이 산업사회에서도 낮은 평가가 계속된 것은 사노동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가사노동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똑같은 일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체제변화에 따라 수행자와 노동과정이 변화하는 역사성을 지닌 노동이다. 다가오는 정보사회에서도 가사노동 수행자와 노동과정은 재택근무의 증가, 가족원의 가사노동 분담, 가사자동화 등으로 변화를 겪을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사회변화 따라 가사노동 가치를 재평가하는 작업이 가정학자에게 계속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 권호문(1990). 송암집. 민족문화추진회판. 한국문집총간 48. 민족문화추진회.
김성희(1992). 전통사회 여성의 가내노동특성과 경제

- 적 가치.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생활과학연구
제 17권.
- 김성희(1996). 가정기기 도입에 따른 가사노동의 변
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영희(1938). 외국인인 본 40년전 조선부인. 여성.
조선일보사. 1938년 12월.
- 김용덕(1981). 조선후기사상사연구. 한국문화총서 제
21집. 서울:을유문화사.
- 김용만(1996). 노비생활. 한국고문서학회 위음. 조선
시대생활사. 서울:역사비평사.
- 김용만(1997). 조선시대 사노비연구. 서울:집문당.
- 박제가(1990). 복학의.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
소편. 한국여성관계자료집 근세편. 이화여자대
학교 출판부.
- 백성현 · 이한우(1999). 파란 눈에 비친 하얀 조선. 서
울: 새날.
-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번역(1991). 이조실
록: 세종장헌대왕실록 22권. 서울: 여강출판사.
_____. 이조실록: 성종강정대왕실록 81권. 서울: 여
강출판사.
- 비숍, 이사벨라 버드 · 이인화 옮김(1994).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서울: 도서출판 살림
- 소혜왕후 한씨 · 김영한 역주(1985). 내훈. 서울: 민
우.
- 송시열(1986). 우암선생 계녀서. 서울:정음사.
- 신동아. 1932. 6.
- 어숙원(1985). 패관잡기. 민족문화추진회편. 고전국역
총서 대동야승 1. 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여상. 1966. 3
- 여성동아. 1970. 4.
- _____. 1968. 2.
- 오페르트, 에른스트 · 한우근 역(1974). 조선기행. 서
울:일조각.
- 오희문 · 이민수역(1990). 쇠미록 상 · 하권. 해주오씨
추탄공파중증
- 유희춘(1993). 미암일기. 담양향토문화연구회. 광명문
화사.
- 이덕무 · 김종권 역(1983). 사소절. 서울:양현각
- 이만규(1988). 조선교육사2. 서울: 거름
- 이장희(1989). 조선시대 선비연구. 서울:박영사.
- 이종호(1993). 조선시대의 경제사상. 서울:민속원.
- 이헌창(1990). 구한말 충청북도의 시장구조. 근대조
선의 경제구조. 안병직 · 이대근 · 中村哲 ·
楣村秀樹 편. 서울:비봉출판사.
- 전형택(1994). 조선후기노비신분연구. 서울:일조각.
- 조풍연 해설(1996).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생활과
풍속. 서울: 서문당.
- 지승중(1997). 조선전기노비신분연구. 서울:일조각
- 최재석(1983).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서울:일지사.
- 최희진(1994). 한국인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분석에 관한 연구-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부터 1980년대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개발원(1991). 여성백서.
- 허난설헌 외(1973). 역대여류한시문선. 서울:대양서적
- 허동화(1997).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우리 규방 문
화. 서울:현암사.
- 木村光彦(1990). 구한말 충청북도의 시장구조. 근대
조선의 경제구조. 안병직 · 이대근 · 中村哲 ·
楣村秀樹 편. 서울:비봉출판사.